

# HD현대중, 합병 시너지 키운다

## 중형선 야드 함정 건조 가시화

HD현대미포 인프라 활용 본격화 중형선 3·4번 도크 함정 배치 검토 블록 공동 제작 등 통합 생산 진행 방산 생산 병목 해소 기대감 커져 합병 이후 현장 시너지 구체화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말 HD현대미포와의 합병 당시 제시한 생산·운영 재편 구상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중형선 야드 활용과 생산 인프라 통합 등이 맞물리며 합병 시너지가 구체화하는 흐름이다.

16일 업계와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할 함정 일부를 중형선 야드 3·4번 도크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까지 중형선 29억8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의 68.5%를 달성했으며, 2028년 슬롯 50척 가운데 절반 가량을 채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회사가 최근 2029년 슬롯을 열어 중형 석유제품운반선(MR P/C) 일부를 배정할 것을 두고, 상선 일부를 뒤로 미루고 함정 물량 투입을 위한 공간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중형선 야드에서 내년부터 특수선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회사 측은 미포의 기존 4개 도크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투자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생산 인프라 통합 운영도 본격화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와 HD현대미포를 합병해 함정·중형선사업부로 조직을 정비했다. 현재는 함정사업본부가 대형시험선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11일 진수한 2400톤급 필리핀 원해경비함 1번함 '라자 솔라이만'함. /HD현대

설계를 맡고, 블록을 공동 제작한 뒤 중형선사업본부가 조립하는 첫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특수목적선 역할을 통합해 사업 기반을 재정비하는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합병 당시 제시된 생산 체계 재편 방향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합병의 핵심은 HD현대중공업의 방산 생산 병목을 HD현대미포 인프라로 보완하는데 있었다. HD현대중공업은 도크 부족으로 추가 수주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 HD현대미포는 4기의 도크와 자동화 설비를 갖춰 중소형 함정·특수선 건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생산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매출을 지난해 약 1조원에서 2030년 7조원, 2035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기술 경쟁력 강화도 당시 제시된 과제다. 회사는 함정·중형선사업부를 중심으로 상선·방산·특수목적선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

소형선과 대형선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전기추진·자율운항 기술의 대형선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수목적선 시장 확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시됐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각각 보유한 실적과 기술을 통합해 쇄빙선과 해상풍력 관련 선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입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와 함께 해외 야드 운영 일원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도 합병 이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회사는 싱가포르 투자법인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등 해외 야드를 통합 관리하고,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 해상선 부분의 원가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현규 국립장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포는 원래 7만톤 이하 중형선을 주로 건조해온 야드로, 중소형 함정 건조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metro

# HD현대일렉, 친환경 대용량 변압기 기술 입증

460MVA급 英 내셔널그리드 공급 고전압·대용량 친환경 기술력 입증 유럽 전력기기 시장 공략 가속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최대 용량의 친환경 변압기를 앞세워 유럽 전력기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400킬로볼트(kV), 460메가볼트암페어(MVA)급 친환경 절연유 적용 변압기의 최종 승인 시험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국 전력망 운영사인 '내셔널그리드'의 영국 내 변전소에 공급될 예정이다. 460MVA급은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변압기 가운데 최대 규모로, 고전압·대용량 제품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 HD현대일렉트릭의 친환경 변압기는 기존 광유 대신 합성 에스테르 절연유를 적용해 발화점을 높이고 화재 위험을 낮춘 제품이다. 절연유가 유출되더라도 자연적으로 분해돼 환경 부담이 적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유럽처



HD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한 국내 최대 용량 친환경 절연유 적용 변압기. /HD현대

럼 도심 변전소와 환경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서는 이런 특성이 공급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친환경 변압기 제작은 대용량일수록 더 까다롭다. 발열 제어와 절연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술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전압·대용량 친환경 변압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품은 기존 국내 최대였던 200MVA대 제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친환경 전력기기

라인업도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온실가스인 SF<sub>6</sub>(육불화황)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145kV급 고압차단기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했고, 해당 제품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수주로 이어졌다. 현재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420kV급 SF<sub>6</sub>-free 차단기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번 행보는 HD현대일렉트릭의 유럽 시장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다. 유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동시에 SF<sub>6</sub>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환경 규제가 도입되면서 친환경 전력기기 수요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실제 HD현대일렉트릭의 매출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전체 수출 중 북미 매출은 2022년 4259억원(20.2%)에서 작년 1조6149억원(39.6%)까지 증가하며 최대 시장으로 자리 잡았고, 유럽 역시 같은 기간 1543억원(7.3%)에서 작년 약 10% 수준으로 확대됐다.

/구남영 기자 koogja\_t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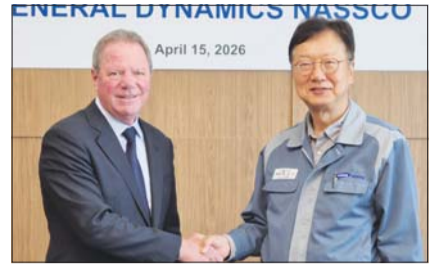
# 삼성중, 美 해군 지원함 사업 박차

GD나스코와 전략 협력

삼성중공업은 제너럴 다이내믹스나스코(GD NASSCO) 경영진이 지난 15일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과 양사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GD NASSCO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조선 계열사다. 1950년대 이후 미 해군 지원함과 상선 150척 이상을 인도했으며, 미국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설계부터 건조, 수리까지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선소로 꼽힌다. 현재 미 해군 존 루이스급 유티보급함(T-AO) 20척을 건조하고 있으며, 차세대 잠수함 지원함(AS(X)) 설계도 진행 중이다.

이날 삼성중공업을 찾은 GD NASSCO 경영진은 삼성중공업의 첨단 기술력이 NGLS 개념설계는 물론 향후 건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설계부터 건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GD NASSCO와 긴밀히 협력해 미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효율적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우측)과 데이비드 카버 나스코 사장(좌측). /삼성중공업

인 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사는 GD NASSCO의 현대화·자동화와 관련한 기술 협력 논의도 한층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사 경영진은 실무 협의 이후 삼성중공업의 최신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내입공장과 안전·도장 VR 체험장을 둘러봤다. 내입공장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장비를 원격 운영하고, 로봇이 선박 3D 캐드 모델과 계속 데이터를 인식해 용접을 수행하는 등 삼성중공업의 자동화 기술이 집약된 생산시설이다.

삼성중공업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전환(RX) 기술을 기반으로 한 24시간 자동화·무인화 조선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 삼성, 유럽서 'AI TV 대중화' 본격 시동

독일서 '유럽 테크 세미나' 개최 AI 기능 강화한 TV·오디오 선보여

삼성전자는 15일부터 16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웨라톤 공항 호텔에서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2026년형 TV·오디오 신제품을 소개하는 '2026 유럽 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테크 세미나는 글로벌 영상·음향 전문가를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 주요 테크 미디어 및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AI 기술이 적용된 2026년형 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유럽 시장에 차별화된 AI 스크린 경험을 제시하고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역량을 집결한 통합 플랫폼 '비전 AI 컴패니언'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서 'AI TV 대중화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

'비전 AI 컴패니언'은 시청 중인 콘텐츠 정보 제공은 물론, 여행 계획 수립·음식 레시피 추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TV의 역할을 스마트 홈의 중심 허브로 확장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정밀한 색 표현과 깊이감 있는 화질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RGB' TV를 앞세워 화질과 성능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서는 색역 지표 비교와 로컬 디밍 기술 시연을 통해 차별화된 화질 경쟁력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500Hz 초고주사율을 지원하는 OLED 게이밍 모니터(FG600S)와 6K 해상도 모니터(G80HS), 새로운 와이파이 스피커 '뮤직 스튜디오 7·5'도 선보였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현 부사장은 "프리미엄부터 보급형까지 전 라인업에 고도화된 AI 기술을 적용해 모두를 위한 'AI TV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 LS비나, 230kV 초고압 케이블 美 인증

美 전력 프로젝트 납품 자격 확보

LS에코에너지는 LS비나가 글로벌 공인 시험기관 KEMA로부터 230kV급 초고압 케이블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미국 전력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규정(CS9)을 충족해 취득한 것으로 이를 통해 LS비나는 미국 내 대형 전력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납품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북미 전력 시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노후 송전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송전 인프라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약 79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초고압 케이블의 경우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검증이 필수적인 만큼 인증을 확보한 글로벌 공급업체 중심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LS비나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 경쟁을 바탕으로 초고압 케이블 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며 북미까지 대응 가능한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사업을 확대 중이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이번 인증은 LS에코에너지가 북미 시장까지 대응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맞춰 시장 공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